

하인두암에 있어서의 음성재건수술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이비인후과학교실

이성수·최 호·김철호

하인두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방치되고 진행암이 되어서 연하장애나 애성 등의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암이 후두까지 침범되거나 근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후두합병절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후두에는 호흡, 발성 및 연하시의 오연(aspiration) 방지라는 3가지의 큰 기능이 있다. 후두를 적출함으로써 이들 기능이 없어지지만, 호흡은 영구기관공을 통해 이루어지며, 또 기도과 소화관을 완전히 분리한 형태로 식도재건을 시행함으로써 오연 없이 연하기능은 회복된다. 그러나 발성기능에 있어서 음성재건수술이 추가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것이 현황이다.

근래에는 수술의 안전성의 향상과 함께 수술후 삶의 질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이른바 형태나 기능의 온존수술이 많은 분야에서 검토되고 있다. 후두 적출로 인해 잃어버린 발성기능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발성기능의 재회득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은 여러 가지로 고안되어 왔지만 인두후두식도절제가 시행된 경우에 적용 가능한 술식은 적다.

하인두암에 대하여 인두후두식도절제술과 동시에 유리회맹부이식법에 의한 음성재건수술을 시행하여 보고하고자 한다.